

# WTO/DDA 농업협상 동향

농림부 국제협력과

지난 3월 하민스 초안 합의실패에 이어 이번 칸쿤 각료회의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12월 일반이사회 결정까지는 사실상 소강상태가 지속 예정이다.  
또한 협상 세부원칙 수립이 지연될 경우 내년에 개실될 쌀 재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쌀 재협상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칸쿤 각료회의 개요

### 가. 칸쿤 각료회의 성격

- 2001.11월 출범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중간 점검
  - 3년 협상기간(2002~2004년)의 중간시점에 개최
  - 농업, 비농산물, 싱가포르 이슈의 협상 세부원칙(modalities)에 관한 기본골격 수립이 주요 목적

### 나. 각료회의 진행

각료회의 의장(Derbez 멕시코 외무장관)은 회의 첫날인 9.10(수) 5개 분야별 의장을 임명하여, 분야별로 입장 조율

- 5개 분야: 농업, 비농산물, 싱가포르 이슈, 개발, 기타
- 수석대표 회의(HOD)를 매일 개최하여, 분야별 협상 진전상황 보고

- 회의 막바지에는 주요국 비공식회의(소위 그린룸 회의)를 개최하여, 쟁점분야에 대한 의견 조율 시도
- 회의 최종일인 9.14(일) 쟁점분야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회의 종료

### 〈 우리나라 대표단 구성 〉

- 수석대표: 농림부장관, 통상교섭본부장
- 교체수석대표: 주제네바 대사
- 대 표: 외교부, 농림부, 재경부, 산자부 등의 관계관

## 2. 농업협상 진행 경과

- 이번 각료회의는 세부원칙의 주요 쟁점에 대한 기본골격/framework)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

- 농업협상그룹 Yeo 의장은 미국-EU 절충안을 중심으로 한 각료회의 문서초안을 기초로 의견수렴 후 새로운 초안 제시(9.13)
  - 관세감축의 경우 농산물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UR방식(점진적 감축), 스위스 공식(급격한 감축), 무관세 등 각기 다른 방식에 따라 감축토록 하고, 관세상한을 설정
- 국내보조는 총액 뿐만 아니라 품목별로도 보조상한을 설정 (UR 당시에는 보조 총액만을 대상으로 감축)
- 개도국의 경우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수준 및 이행기간을 우대하고 수출 물류비 지원은 계속 허용
- 각료회의 농업협상은 수입국그룹(G-10)과 수출개도국그룹(G-22)이 미국-EU 절충안 내용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형태로 진행
  - 우리나라는 관세상한 문제, TRQ 증량 문제, 특별품목(SP)의 유지 등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응
- 9. 14 [싱가폴 이슈] 분야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일괄타결 원칙에 의거 농업분야 협상 진행 도중에 의장이 각료회의 합의 도출 실패를 선언

### 3. 칸쿤각료회의의 문서 초안

#### 가. 시장접근 분야(관세감축 및 TRQ)

- 모든 농산물을 3개 그룹으로 분류,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감축(분류 방식과 비율은 추후 협상)
  - i) 그룹 : 수입에 민감한 품목을 대상으로 UR방식을 적용하되, 고관세 유지 시는 TRQ 확대
  - ii) 그룹 : 스위스 공식(고관세는 저관세 보다 많이 감축)
  - iii) 그룹 : 무관세
- 고관세 품목에 대하여는 일정 수준의 관세상한을 설정하여 감축하거나 미감축시, R/O방식으로 TRQ 증량
  - 다만, 소수 NTC 품목에 대하여는 관세상한 예외 가능(협상대상)

#### 【개도국】

- 선진국과 동일하게 3그룹으로 분류하여 감축하되, iii)그룹의 관세는 5%이하로 감축
- i) 그룹중 특별품목(SP)을 설정하여 TRQ 증량 면제
- 관세상한 문제는 추후 협상 과제임

#### 나. 국내보조

- 무역왜곡적 보조수준이 더 높은 국가가 더 많이 감축하도록 함
  - 감축대상 보조(AMS)
    - 최종양허수준을 기준으로 [ ]% ~ [ ]% 감축
    - [ ]년 동안의 품목별 평균 AMS 수준을 상한으로 도입
- 생산제한 직접지불(Blue Box)
  - [ ]년까지 '00~'02 농업총생산액의 5% 이하로 지급 가능, 이후 [ ]년에 걸쳐 매년 [ ]% 선형감축

\* 현행 협정상의 요건중 생산제한 요건 언급 없음(변형된 Blue Box)

- 최소허용보조(De-minimis) : [ ]% 감축
- 무역왜곡적 보조 총액상한 설정
  - 2000년도 AMS 양허수준, 변형된 Blue Box, De-minimis의 총액을 [ ]% 감축

\* [ ]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표기하지 않음.

- 허용보조(Green Box)
  - 허용보조 기준을 생산 또는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최소화 되도록 재검토

- 감축폭 및 이행기간을 추후 협상에서 결정

#### 【개도국】

- 품목별 최소허용보조는 현행 10% 유지
- 농촌개발 등에 필요한 투입재 및 구조조정 보조(개도국우대 국내보조)와 개도국우대 허용보조 강화

#### 다. 수출보조

- 개도국 관심 품목에 대한 수출보조 : [ ]년에 걸쳐 철폐
- 기타 품목 : 철폐를 전제로 감축
- 개도국우대 수출보조(농업협정 9.4조) 현행 유지

#### 라. 기타

- 평화조항 : [ ] 개월 연장
- 미합의 쟁점 : TRQ 증량 기준, 수출독점국 영무역, 수출세, NTC, 분야별 자유화, 시장 접근·국내보조·수출경쟁의 연계성, 지리적 표시 등

### 4. 평가 및 향후 대응

- 미국-EU 절충안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케언스그룹과 NTC그룹을 중심으로 한 수출·입국간 대립구도의 성격이 강했으나
  -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EU 공조와 그 반대그룹들간의 대립구도 양상이 현격히 부각되어 협상구조가 더욱 복잡해짐
- 이번 각료회의에서 우리나라는 G-10 그룹

및 개도국 SP그룹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의장 수정안에 '관세상한 설정에 대한 신축성 확보', '개도국 특별품목 유지' 등 수입국 입장을 반영

- 지난 3월 하빈슨 초안 합의실패에 이어 이번 칸쿤 각료회의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12월 일반이사회 결정까지는 사실상 소강상태 지속 예상
- 칸쿤 각료회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는 '04년말 협상 종료일정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적으로는 당초 협상일정을 맞추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
- 금번 칸쿤 각료회의의 협상결과와 협상과정에서 제시된 각국 입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우리의 협상전략을 재점검하여 향후 농업 협상에 대응
- 이번에 Yeo 의장이 제시한 수정안이 구속력은 없으나 향후 협상과정에서 의미있는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실익을 분석하여 주요국과의 공조관계를 재정립
- 협상 세부원칙 수립이 지연될 경우 내년에 개시될 쌀 재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 쌀 재협상 전략을 마련 ㉞

